

《朱子讀書法》 편찬체례와 그 한계

김동현*·이세동**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朱子讀書法》 편집방식과 한계점 |
| II. 《朱子讀書法》 편찬과정과 成書 | V. 맺음말 |
| III. 분류와 편찬체례 | |

I. 머리말

문자가 발명된 이후로 독서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학문을 익히고 인격을 수양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또한 공자가 殷나라의 上帝중심의 신탁문화를 周나라의 禮樂중심의 인문정신으로 학문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는 배움과 독서는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학업이 되었다. 이렇게 배움과 독서에 대한 학문적 역량이 점차 쌓이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고 짧은 격언 중심의 말일 뿐 독서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없었고 주자에 이르러서 비로소 독서에 관한 체계적인 담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자가 독서를 단순한 책읽기의 수준으로 여기지 않고 학문의 방법으로 격상시킨 까닭은 그의 主知主義 경향과 밀접한 관계 있다. 주자학을 대표하는 명제는 ‘居敬窮理’이지만 앎과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 주자

* 慶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大學院 (第1著者)

** 慶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交信著者)

학의 특성상 窮理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窮理의 방법으로 독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朱子文集》, 《朱子語錄》¹⁾ 및 주자관련 자료에서 독서에 관한 담론을 부지기수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독서관련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후학들이 독서의 핵심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자의 독서에 관한 내용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朱子讀書法》이다. 《朱子讀書法》은 《朱子文集》과 《朱子語錄》 및 기타 주자관련 서적에서 독서법 관련내용을 광범위하게 발췌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한 내용을 강령과 6조목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독서법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朱子讀書法》은 讀書法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²⁾ 이렇게 《朱子讀書法》은 사상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발점이었지만 이전 연구들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주자의 교육사상과 독서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또한 논점의 근거 자료는 대부분 《朱子語類》 10, 11권에 있는 〈讀書法 上下〉에

- 1) 《朱子讀書法》은 1266년에 판각하였고 黎靖德이 편찬한 《朱子語類》는 1270년 江西 建昌에서 판각하였다. 따라서 《朱子讀書法》은 李道傳이 43권으로 1215년에 池州에서 판각한 池錄, 李性傳이 46권으로 1228년에 饒州에서 판각한 饒錄, 蔡抗이 26권으로 1249년에 饒州에서 판각한 饒後錄, 黃士毅가 140권으로 1220년에 眉州에서 판각한 蜀類, 王侁이 40권으로 1252년에 徽州에서 판각한 徽續類의 다양한 각종어록과 어류에서 발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語錄과 語類가 후대에 잘 전해지지 않았고 오류가 많아 黎靖德의 《朱子語類》를 기본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1270년에 판각한 《朱子語類》는 위에 언급한 이전에 존재하였던 각종 語錄과 語類인 ‘三錄二類’를 합하고, 체제는 黃士毅의 주제별 분류법을 따라 편찬하여 더욱 完整한 판본의 책으로 《朱子語錄》과 《朱子語類》는 같은 계열의 책이기 때문이다. (김문식, 〈조선본 『朱子語類』의 간행과 활용〉, 《사학지》 43권, 2011년, 63~66쪽 참조)
- 2) 施榆生, 〈程端禮《讀書分年日程》初探〉, 《漳州師院學報》, 1998년 제3기, 80-83쪽 참조.

만 근거하고 있다.³⁾ 그리고 설사 《朱子讀書法》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6조목에 대한 개괄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만 머물고 《朱子讀書法》의 구성과 편찬체례, 편집양상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⁴⁾ 그래서 본 연구는 《朱子讀書法》을 분석하고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朱子讀書法》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朱子讀書法》의 편찬과정과 成書

우선 《朱子讀書法》의 예비적 고찰로서 《朱子讀書法》은 張洪과 齊熙⁵⁾가 무슨 이유로 편찬하였고, 이 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張洪이 쓴 서문을 통하여 편찬목적을 살펴보자.

성현의 책을 읽는 자가 적지 않지만, 성현에 이른 자가 드문 것은 책을 읽으나 올바른 독서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나라, 당나라 때 의리를 말한 것은 마치 잠꼬대 같았으니, 그 사이에 간혹 大儒들이 正心を 말하더라도

- 3) 국내에서 나온 주자 독서법 관련 논문들은 신태수, <주자어류(朱子語類) 독서법(讀書法)에 나타난 활간론(活看論)>, 《한민족어문학》 60권, 2012년, 신태수, <주자어류(朱子語類) 독서법(讀書法)의 층위(層位)와 그 구성주의적(構成主義的) 성격(性格)>, 《영남학》 21권, 2012년, 김기호, <주자어류(朱子語類) 독서법에 나타난 신의론(新意論)>, 《인문연구》 59권, 2010년 등과 같이 《朱子語類》에 근거한 주자 독서법 연구가 있고 교육학적 관점이나 우리나라 퇴계와 율곡이 주자의 독서법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朱子讀書法》에 관한 연구와 소개는 전무한 실정이다.
- 4) 중국에서는 《朱子讀書法》에 관한 연구가 비록 있지만 대부분 《朱子讀書法》의 강령과 6조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교육학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만 있을 뿐 《朱子讀書法》의 구성과 체례 편집방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5) 편찬자인 張洪과 齊熙에 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다. 이미 《四庫全書提要》에서도 단지 그들의 字와 출신 지역만을 언급하고 그들의 사적은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洪字伯大, 熙字充甫, 皆翻陽人. 事蹟無可考據.”(《朱子讀書法·提要》)

誠意에 미치지 않았고, 성의를 말하더라도 格物致知에 미치지 못하였다. 독서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으니 학자들은 장차 무엇을 따라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음을 높인 것으로 여기는 자는 격언과 큰 가르침을 마음 속의 장애로 여겨 책도 취하지 않는데 무슨 독서법을 취하겠는가?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는 자는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서로 기교를 다투고 말을 화려하게 하여 세상에 영합하고 총애를 구할 따름이니 올바른 독서법이 어디에 있겠는가?⁶⁾

이 서문에 근거해보면 당시의 학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공부와 깨달음만을 중시하고 格物致知를 하지 않는 心學派이고 다른 하나는 책을 외우고 화려한 문장과 기교를 추구하지만 마음공부를 등한시하는 詞章學派이다. 그들은 다들 한쪽으로 치우쳐서 새의 양 날개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⁷⁾ 마음공부와 격물치지의 공부를 같이하지 않고 있다.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독서법자체가 필요도 없겠지만 책을 읽는 이들은 학문을 하는 이유와 올바른 학문순서와 독서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 당시 시속의 흐름이 한편으로는 너무 고원한 것만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공부와 글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폐단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학문순서와 독서법으로 당시의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朱子讀書法》을 편찬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朱子讀書法》은 어떤 과정을 거쳐 편찬되었을까? 《四庫全書提要》와 張洪과 齊熙가 쓴 서문에 근거해 보면 《朱子讀書法》은 5단계를 거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본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본래 주자의 문인인 輔廣이 편집한 것으로 巴川 사람 度正이

6) 讀聖賢之書者爲不少矣，鮮能至於聖賢者，讀之無其法也。漢唐說義理如說夢，其間大儒，言正心而不及誠意，言誠意而不及致知格物。法之未立，學者將安適從乎？故以了悟爲高者，直謂格言大訓爲胸中之障礙，書且無取，何取於法？以記覽爲工者，又不過誇多鬪靡，務以榮華其言，希世取寵而已，法於何有？（《朱子讀書法·原序》）

7) 曰 亦須窮理，涵養窮索，二者不可廢一，如車兩輪，如鳥兩翼。（《朱子語類》9권）

일찍이 遂寧 사람인 于和에게 교감과 간행을 부탁하였고, 파양 王氏가 다시 책의 뒤편을 보충하였습니다.⁸⁾

다만 책 사이의 내용이 소략하여 미진하고, 어지럽고 순서가 없는 것이 간간이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이 분명하게 보지 못할까 걱정하였으니 어찌 확고하게 독서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삼가 이 책은 輔廣이 초고를 정하고 수정하지 못한 책이 아닐까 의심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외람되어 한가로운 날에 고향 친구 龍山 張洪과 함께 輔廣이 편찬한 이 책을 바탕으로 주자께서 독서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輔廣이 기록하지 못한 것을 취하여 수집하고 보태고 순서를 조정하였다. 먼저 綱領을 정하여 책을 마땅히 읽어야 하는 이유와 읽기를 마땅히 힘써야 하는 내용을 실었다. 다시 그 내용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정리하여 6가지 조목인 循序漸進, 熟讀精思, 虛心涵泳, 切己體察, 著緊用力, 居敬持志로 만들어 매 조목 아래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에 강령과 조목이 찬란히 빛나고 분명하여 상, 하권 두 권이 되었다.⁹⁾

15년 전에 張洪과 함께 이 책을 편찬하였는데, 咸淳 乙丑年(1265)에 내가 마침 會稽에 머물고 張洪이 四明山이 있는 浙江 寧波府에서 강학하여, 서신을 자주 주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더욱 이 책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편찬하였으니 이에 다시 남은 한이 없어졌다. 張洪이 鄞縣의 泮宮에서 이 책을 간행하여 많은 선비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니 이것이 어찌 단지 이 책만의 행운이겠는가? 학자들이 이 독서법을 준수하고 힘써 행하면 우리 유학의 도가 행운일 것이다!¹⁰⁾

8) 其書本朱子門人輔廣所輯, 巴川度正嘗屬遂寧于和之校刊, 翻陽王氏復廣爲後編. (《朱子讀書法·提要》)

9) 但其間踈略未盡, 雜亂無倫者, 間亦有之. 則恐學者未能見之瞭然, 何以使其守之確然哉! 故竊疑此漢卿草定, 而未脩改之本, 罔借於暇日, 與鄉親友龍山張君伯大, 因其舊文, 及取文公之言此而漢卿之未錄者, 相與搜集附益, 更易次第. 先定綱領, 以載書之所當讀之故, 與讀之所當務之說. 復於中撮其樞要, 釐爲六條. 曰循序漸進, 曰熟讀精思, 曰虛心涵泳, 曰切己體察, 曰著緊用力, 曰居敬持志, 而著其說於每條之下. 於是綱領條目, 粲然明白, 爲上下兩卷. (《朱子讀書法·原序》)

10) 十五年前相與編類此書, 咸淳乙丑, 罔適留會稽, 而張君職教四明, 郵傳如織, 因得益如是正而更定之, 於是無復遺恨. 張君且欲刊之鄞泮, 以惠多士, 是豈徒此書之幸? 學者遵是法而力行之, 斯道其幸乎! (《朱子讀書法·原序》)

원나라 때에 판본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는데, 至順年間에 江南 行臺御使 趙之維가 南京의 학교에서 다시 판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永樂大全》에 全帙이 수록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편찬한 권수와 순서는 이미 상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편찬한 권질을 짐작하여 4권으로 만들어서 주자의 학문을 강론하는 사람들에게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¹¹⁾

《朱子讀書法》은 위의 내용에 근거해보면 성서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은 주자의 문인인 輔廣이 주자저술에서 독서법과 관련한 내용을 모아 편찬한 시기, 다음은 輔廣이 편찬한 책이 소략하고 순서가 어지러운 부분을 張洪과 齊熙가 강령과 6조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 하 두 권으로 만든 시기, 그리고 15년 후에 다시 책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張洪이 鄆縣의 泮宮에게 책을 간행한 시기, 다음은 원나라 至順年間에 南京의 학교에서 판각되어 《永樂大全》에 수록된 시기, 마지막으로 청나라 乾隆年間에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에 《永樂大全》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여 4권으로 만든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서과정을 통하여 책의 체계와 구성은 張洪과 齊熙에 의해서 2기와 3기에서 완성되었고, 4권으로 책의 권질이 확정된 것은 마지막 5기인 《四庫全書》를 수찬할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기	편찬자	권수
1기	輔廣이 편집한 시기	未詳
2기	張洪과 齊熙가 강령과 6조목으로 분류한 1차시기	2권
3기	張洪과 齊熙가 수정 보완한 2차시기	2권
4기	《永樂大全》에 수록된 시기	未詳
5기	《四庫全書》에 수록된 시기	4권

11) 元時板已不存。至順中，江南行臺御史趙之維重鑄於集慶路學，故永樂大典全帙收入。原編卷次，已不可考。今酌其編帙，釐爲四卷。俾講新安之學者，有所考證焉。（《朱子讀書法·提要》）

III. 분류와 편찬체례¹²⁾

1. 분류

《朱子讀書法》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령과 6조목으로 산만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주자의 독서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점이다. 강령에서는 책을 마땅히 읽어야 하는 이유와 학문의 전체적인 규모를 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6가지 조목은 循序漸進, 熟讀精思, 虛心涵泳, 切己體察, 著緊用力, 居敬持志로 매 조목 아래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놓았다.

첫 번째로 循序漸進은 학문을 하고 독서를 할 때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순서에는 두 가지 순서가 있다. 하나는 여러 책들 중에서 무슨 책을 먼저 읽고 무슨 책을 나중에 읽을지에 관한 순서이고 다른 하나는 책에는 각각 차례와 순서가 있으니 순서에 따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주자학에서 경계한 것은 학문의 순서를 뛰어넘어 학문의 기초를 다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자는 반드시 먼저 《大學》을 읽고 다음으로 《論語》, 다음으로 《孟子》 그리고 《中庸》을 읽게 하였는데¹⁴⁾ 그 중에서 특히 《大學》을 중요하게 여겨서 《大學》으로 학문을 하는 방법과 순서를 세우게 하였다.¹⁵⁾ 그리고 經書를 읽고 난 이후에 歷史書를 읽게 하였고,¹⁶⁾ 역사책은 正史인 《史記》와 《漢書》 등을 읽어서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후에 편년체인 《資治通鑑》을 읽으라고 권유하였다.¹⁷⁾

12) 《朱子讀書法》 판본은 문연각 사고전서를 저본으로 하였다.

13) 以二書言之, 則先論後孟. 通一書而後及一書. 以一書言之, 則其篇章文句首尾次第, 亦各有序而不可紊也. (《朱子讀書法·綱領》, 1권)

14) 學須以大學為先, 次論語, 次孟子, 次中庸. 中庸工夫密, 規模大. 論, 孟, 中庸, 待大學通貫浹洽, 無可得看後方看, 乃佳. (《朱子讀書法·循序漸進》, 3권)

15) 先讀大學, 可見古人為學首末次第. (《朱子讀書法·循序漸進》, 3권)

16) 讀書須是先以經為本, 而後讀史. (《朱子讀書法·循序漸進》, 3권)

그리고 하나의 책을 읽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와 차례에 따라 구절과 단락을 읽어서¹⁷⁾ 앞의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히 뒤의 구절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¹⁹⁾ 주자는 이처럼 순서에 따라 학문이 점차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런 漸進論은 아마도 학동의 인식능력 발달과정에 보조를 맞추려는 측면과 禪宗의 頓悟에 영향으로 학자들이 차근 차근 학업의 과정을 밟지 않고 갑자기 고원한 이치만을 말하는 당시 학계의 풍토를 바로잡기 위함일 것이다.

두 번째로 熟讀精思는 책을 익숙히 읽고 각 단어와 구절 및 문장의 뜻에 대하여 정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熟讀은 책을 대충대충 읽지 않고 익숙하게 읽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²⁰⁾ 표면의 뜻만이 아니라 성현의 깊은 뜻도 이해하는 수준의 깊은 독서를 말한다.²¹⁾ 그리고 熟讀은 책을 익숙히 읽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암송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²²⁾

精思는 정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²³⁾ 책과 학자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²⁴⁾ 의심을 가지고²⁵⁾ 사유의 과정을 통하여 겉에서 속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²⁶⁾

17) 通鑑難看，不如看史記漢書。史記漢書事多貫穿。通鑑是逐年事，逐年過了，更無蹤跡。某舊讀通鑑，且草看正史一上，却來看他。(《朱子讀書法·循序漸進》，3권)

18) 讀書之法，須從頭至尾逐句玩味，看上字時如不知有下字，看上句時如不知有後句，看得都通透了，又却從頭看此一段，令其首尾通貫。然方其看此段時，亦不知有後段也。(《朱子讀書法·循序漸進》，3권)

19) 未得乎前，則不敢求乎後，未通乎此，則不敢志乎彼。(《朱子讀書法·綱領》，1권)

20) 且將正本文字熟看，自然意義日生，有所不解，因而記錄，他日却有反覆。論語愈看愈見得滋味出。若欲草草看去，儘說得通，恐未能有益。(《朱子讀書法·熟讀精思》，1권)

21) 而今公們只於外面捉摸箇影子說將去，這箇不喚做學。聖人之言，熟讀玩味，道理自見。(《朱子讀書法·熟讀精思》，1권)

22) 大抵觀書先須熟讀，使其言皆若出於吾之口，繼以精思使其意，皆若出於吾之心，然後可以有得爾。(《朱子讀書法·綱領》，1권)

23) 為學讀書，須是耐煩細意去理會，切不可驕心。(《朱子讀書法·熟讀精思》，1권)

24) 某舊來看文字，專看異同處。如謝上蔡之說如彼，楊龜山之說如此，何者為得，何者為失，所以為得者是如何，所以為失者是如何。(《朱子讀書法·熟讀精思》，1권)

25) 無疑者須要有疑，有疑者却要無疑。(《朱子讀書法·熟讀精思》，1권)

세 번째로 虛心涵泳은 마음을 비우고 책에 무뎠어 노니는 것이다. 虛心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으로 책을 읽을 때에 자신의 사사로운 견해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성현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경서를 읽어 성현의 뜻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성현의 말씀을 자신의 견해에 끼워 맞추고 자신의 사사로운 견해로 경전을 천착하는 행위를 경계한 것이다.²⁸⁾ 涵泳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책 속에 폭 잠겨서 오랫동안 노니는 것으로²⁹⁾ 당시의 학자들은 조급하게 학문의 효과를 구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주자는 熟讀과 涵泳을 통하여 자연스럽게自得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네 번째로 切己體察은 자신을 절실하게 여기고 몸소 살핀다는 것이다.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책을 읽어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을 습득하는데 있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 보고,³⁰⁾ 몸소 체득하고 실현하는데 있다.³¹⁾ 이것이 주자학이 천명한 ‘聖學’이고 주자의 모든 학문적 논의의 목적이 되는 것에 있다. 이 조목에서 주자의 독서법은 단순하게 책을 읽는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修養論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계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다섯 번째로 著緊用力은 바짝 긴장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시의 학자들이 학문을 하고 독서를 한다고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26) 須是今日去了一重, 又見得一重, 明日又去了一重, 又見得一重. 去盡皮, 方見肉, 去盡肉, 方見骨, 去盡骨, 方見髓. (《朱子讀書法·熟讀精思》, 1권)

27) 大抵讀書須是虛心, 方得. 聖賢說一字是一字, 自家只平著心去秤停他, 都使不得一毫杜撰, 只順他去. (《朱子讀書法·虛心涵泳》, 2권)

28) 公看文字好立議論, 是先以己意看他, 卻不以聖賢言語來澆灌胸次. 爭這些子不好, 自後只要白看, 乃好. (《朱子讀書法·虛心涵泳》, 2권)

29) 讀書須靜著心, 寬著意思, 沉潛反覆, 將久自會曉得去. (《朱子讀書法·虛心涵泳》, 2권)

30) 諸公數日看文字, 但就文字上理會, 不曾切己. 凡看文字, 非是要理會字, 正要理會自家性分上事. (《朱子讀書法·切己體察》, 2권)

31) 學者讀書, 須要將聖賢言語體之於身, 如‘克己復禮’, ‘如出門如見大賓’等事, 須就自家身上體看, 我實能‘克己復禮’, ‘主敬行恕’否? 件件如此, 方有益. (《朱子讀書法·切己體察》, 2권)

공부하지 않고³²⁾ 느슨하고 유유자적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의 말이다.³³⁾ 주자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공부의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구도자나 수행자가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³⁴⁾ 용맹정진 하는 것과 비슷하다.³⁵⁾ 즉 주자는 학생들에게 나약한 의지와 게으른 생활태도를 버리고 구도자의 간절한 구도심을 가지고 학문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居敬持志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뜻을 다잡는다.’는 뜻이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안정되고 뜻이 專一해야 한다.³⁶⁾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주자는 ‘敬’을 통하여 마음과 정신이 하나에 집중하게 하여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게 하였다.³⁷⁾ ‘敬’을 쉬운 현대말로 말하자면 ‘고도의 집중력’으로 말할 수 있다. 즉 居敬持志는 책을 읽기 전에 마음과 뜻을 안정시켜 독서에 자신의 정신과 에너지를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보통 주자학의 양대 산맥을 ‘居敬窮理’라고 하여 居敬과 窮理를 두 개의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데에 반하여 《朱子讀書法》에서는 居敬과 窮理, 讀書를 유기적 관련성속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2) 直要抖擻精神, 莫要昏鈍, 如救火治病然. (《朱子讀書法·著緊用力》, 2권)

33) 先生痛言諸生工夫悠悠. (《朱子讀書法·著緊用力》, 2권)

34) 讀書時當將此心葬在此書中, 行住坐臥, 念念在此, 誓以必曉徹為期. (《朱子讀書法·著緊用力》, 2권)

35) 為學要剛毅果決, 悠悠不濟事, 且如‘發憤忘食, 樂以忘憂’是甚麼精神, 甚麼骨筋! 今之學者全不曾發憤. (《朱子讀書法·著緊用力》, 2권)

36) 心不定故見理不得, 今未要讀書, 且先定其心, 屏去許多閑思亂想, 使心如止水如明鏡, 讀書閑時且靜坐, 教他心平氣定, 見得道理漸次分明. (《朱子讀書法·居敬持志》, 2권)

37) 只是一箇敬字好, 方無事時, 敬以自持, 凡心不可放入無何有之鄉, 須是收斂在此, 及應事時, 敬於應事, 讀書時, 敬於讀書, 便自然該貫動靜, 心無時不在. (《朱子讀書法·居敬持志》, 2권)

조 목	내 용
綱領	학문의 뼈대
循序漸進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감
熟讀精思	익숙히 읽고 정밀하게 생각함
虛心涵泳	마음을 비우고 책 속에 노닐
切己體察	자신에게 절실하게 여기고 몸소 살핌
著緊用力	바짝 긴장하면서 공부함
居敬持志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마음을 다잡음

2. 편찬체례

그 다음으로 《朱子讀書法》에서 중요한 특징은 《朱子文集》, 《朱子語錄》 및 기타 주자관련 기록에서 광범위하게 독서법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고 있다는 점이다. 《朱子語類》 10권과 11권에 수록된 〈讀書法〉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朱子語類·讀書法》이 단지 門人과의 문답에서 독서법 관련 내용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지 만³⁸⁾ 《朱子讀書法》은 주자관련 전 텍스트를 망라하여 편지, 상소, 서문, 기문, 발문, 찬문 등 다양한 문체별로 선별하였다. 《朱子讀書法》이 어떻게 발췌를 하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朱子讀書法》 출처 분류표

서 명	권수	편 명	출현빈도
《朱子文集》	14권	奏筭	1회
下同	25권	書(時事出處)	1회

38) 《朱子語類》 10권과 11권에서 〈讀書法〉 上下라는 편명으로 독서법을 모았지만 사실 《朱子語類》의 다른 편명의 내용도 충분히 독서법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가령 8권 〈總論爲學之方〉, 104권 〈自論爲學工夫〉, 113권-121권 〈訓門人〉 등과 《四書五經》을 논한 각각의 편에서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부지기수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10권과 11권의 〈讀書法〉 上下만을 가지고 주자의 독서법 전체를 포괄하고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명	권수	편명	출현빈도
	26권	書(時事出處)	2회
	27권	書(時事出處)	1회
	30권	書(汪張呂劉問答)	2회
	31권	書(汪張呂劉問答)	1회
	33권	書(汪張呂劉問答)	1회
	35권	書	2회
	36권	書	3회
	38권	書(問答)	4회
	39권	書(問答)	11회
	40권	書(知舊門人問答)	2회
	41권	書(知舊門人問答)	3회
	42권	書(知舊門人問答)	1회
	43권	書(知舊門人問答)	7회
	44권	書(知舊門人問答)	5회
	45권	書(知舊門人問答)	6회
	46권	書(知舊門人問答)	7회
	47권	書(知舊門人問答)	7회
	48권	書(知舊門人問答)	10회
	49권	書(知舊門人問答)	5회
	50권	書(知舊門人問答)	11회
	51권	書(知舊門人問答)	4회
	52권	書(知舊門人問答)	7회
	53권	書(知舊門人問答)	16회
	54권	書(知舊門人問答)	15회
	55권	書(知舊門人問答)	12회
	56권	書(知舊門人問答)	12회
	58권	書(知舊門人問答)	6회
	59권	書(知舊門人問答)	7회
	60권	書(知舊門人問答)	6회
	61권	書(知舊門人問答)	1회
	62권	書(知舊門人問答)	10회
	63권	書(知舊門人問答)	2회
	64권	書(知舊門人問答)	5회
	74권	雜著	3회
	75권	序	2회
	76권	序	1회
	78권	記	2회

서명	권수	편명	출현빈도
	80권	記	2회
	81권	跋	1회
	82권	跋	2회
	85권	贊	1회
《續集》	1권	書	3회
《續集》	2권	書	1회
《續集》	3권	書	3회
《大學或問》	1권	大學或問	1회
《西山讀書記》	25권	讀書之序	2회
《詩傳遺說》	1권	綱領	2회
《詩傳遺說》	3권	六義	1회
《詩童子問》	首권	詩傳綱領	1회
《知言》	3권		1회
《文公易說》	18권	作易	1회
《宋名臣言行錄》	12권	朱熹	2회

《朱子讀書法》은 당시에 존재하던 각종 《朱子語錄》 등에서 330조목을 발췌하였다. 그리고 《朱子文集》과 《朱子續集》에서 222회, 기타 주자관련 자료에서 11회를 발췌하였다. 이것이 《朱子讀書法》의 전체 조목 525조목과 차이가 나는 것은 《朱子讀書法》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하나의 조목으로 조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종 《朱子語錄》³⁹⁾에서는 《大學》과 관련된 조목이 14조목이고, 《論語》는 45조목, 《孟子》는 1조목, 《中庸》은 1조목, 《周易》은 11조목, 《尚書》는 1조목, 《詩經》은 12조목, 《春秋》는 5조목, 《禮》는 1조목, 北宋五자는 7조목, 文人訓戒는 68조목, 나머지는 기타 독서와 학문, 수양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四書》에서는 특히 《大學》과 《論語》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고 《五經》에서는 《周易》과 《詩經》, 그리

39) 필자는 각종 《朱子語錄》을 일일이 대조하지 못하여 《朱子文集》과 같은 발췌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각종 《朱子語錄》이 결국 더욱 완전한 《朱子語類》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朱子語類》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고 특히 門人을 訓戒하는 내용에서 많은 내용을 많이 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朱子文集》은 편지가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는데 무려 207조목을 편지에서 발췌하였다. 나머지는 奏劄에서 1조목, 雜著에서 3조목, 序文에서 3조목, 記文에서 4조목, 跋文에서 3조목, 贊文에서 1조목으로 문체별로도 다양하게 발췌하고 있다. 하지만 주자의 시나 문학성이 있는 내용은 제외되었다.

3. 《朱子語類·讀書法》과의 비교

朱子讀書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책은 張洪과 齊熙가 편찬한 《朱子讀書法》과 黎靖德이 편찬한 《朱子語類》의 10권과 11권의 〈讀書法上下〉이다. 따라서 두 책을 비교하여 《朱子讀書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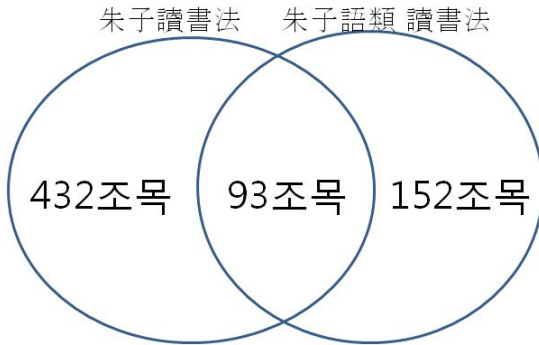
우선 《朱子讀書法》과 《朱子語類·讀書法》의 전체조목의 차이를 비교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朱子讀書法》은 4권으로 전체 525조목이고 《朱子語類·讀書法》은 제10권인 〈讀書法上〉이 100조목, 제11권 〈讀書法下〉가 145조목으로 전체 245조이다.⁴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朱子讀書法》		
권	편명	조목수
1권	綱領	16조목
	循序漸進	38조목
	熟讀精思	48조목
2권	虛心涵泳	57조목

40) 허탁·이용성·이승준 역주, 《朱子語類》(3~4권), 청계출판사, 2001년. 참조.

《朱子讀書法》		
권	편명	조목수
2권	切己體察	24조목
	著緊用力	15조목
	居敬持志	13조목
3권	綱領	19조목
	循序漸進	71조목
	熟讀精思	60조목
4권	虛心涵泳	98조목
	切己體察	28조목
	著緊用力	24조목
	居敬持志	14조목
《朱子語類·讀書法》		
권	편명	조목수
10권	讀書法上	100조목
11권	讀書法下	145조목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朱子讀書法》이 《朱子語類·讀書法》보다 양에서 2배 이상의 많은 조목을 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朱子讀書法》은 강령과 6조목으로 독서법 관련 내용을 세분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6조목 중에서 실질적인 독서방법론인 循序漸進(109조목), 熟讀精思(108조목), 虛心涵泳(155조목)에 관련된 조목이 372조목으로 전체 524조목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朱子讀書法》과 《朱子語類·讀書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朱子語類》 제10권의 〈讀書法上〉은 39개 조목, 제11권 〈讀書法下〉는 54개의 조목이 중복되어 총 93개의 조목이 서로 겹치는데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朱子讀書法》은 이처럼 《朱子語類·讀書法》이 다루지 못한 독서법 관련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朱子讀書法》 편집방식과 한계점

1. 편집방식

이 장에서는 광범위하게 발췌해 온 내용을 어떻게 편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張洪과 齊原가 《朱子讀書法》을 편집하면서 다양한 편집방식을 동원하였는데 引用, 截取, 組合, 分節, 變形, 移動의 6가지 방식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引用은 말 그대로 다른 편집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한다. 《朱子文集》에서 특히 짧은 편지글을 발췌할 때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용한 조목을 살펴보자.

答黃嵩老書曰：“大抵人情苦於猶豫，多致因循，一向懶廢。今但心所欲爲，向前便做，不要遲疑等待。即只此目下頃刻之間，亦須漸見功效矣。年運易往，時不待人，況中歲以後，尤宜汲汲也。”

이 조목은 《朱子讀書法》 4권 著緊用力의 20번째⁴¹⁾ 조목인데 《朱子文集》 58권에 있는 편지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특히 짧은 편지글일 때 다른 편집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두 번째의 截取은 《朱子讀書法》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편집방식으로 전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필요 없는 문장을 산삭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절취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부분을 절취하는 경우, 가운데 부분을 절취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끝부분을 절취하는 경우이다. 지면 관계상 대표적인 경우 한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又曰：“讀書大抵只就事上理會，看他語意如何，不必過爲深味之說，却失聖賢本意，自家用心亦不得其正，陷於支離怪僻之域，所害不細矣，切宜戒之，只就平易處處理會也。”

讀書大抵只就事上理會，看他語意如何，不必過爲深味之說，却失聖賢本意，自家用心亦不得其正，陷於支離怪僻之域，所害不細矣，切宜戒之，只就平易處處理會也。 必有事焉之書不曾接得，不知如何。上蔡云：‘出入起居，無非事者，正以待之則先事而迎，忘則涉乎去念，助長則近於留情。聖人之心如鏡所以異於衆人也。’觀此所謂事者，只是事事之事，遇此一事，則事此一事，本體昭然，此便見所謂操則存，舍則亡也。見此理極平易，只在目前，人自貪慕高遠，所以求之過當而自失之也……

위의 조목은 《朱子讀書法》 4권 虛心涵泳의 27번째 조목이고 아래 조목은 《朱子文集》 39권에 있는 〈答許順之〉의 원문이다. 보는 바와 같이 편지글을 인용하면서 편지 앞부분만 절취하여 인용하였다. 절취하는 경우는 이 경우처럼 보통 문맥의 의미단락이 연결되는 지점까지 절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무리하게 절취하여 의미맥락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다.

41) 번호는 필자가 각 조목별로 임의로 매긴 것이다.

세 번째인 組合의 방식은 여러 개의 조목을 발췌하여 하나의 조목으로 합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조합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의 조목으로 합치게 되면 의미가 모호해지고 문맥이 순조롭게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朱子讀書法》에서는 조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조합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朱子文集》과 《朱子文集》의 내용을 조합한 경우도 있고, 《朱子文集》와 《朱子語錄》을 조합한 경우도 더러 발견된다. 조합의 가지는 일반적으로 2개의 내용을 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3개, 4개가 조합된 경우도 있다. 우선 4개가 조합된 경우를 살펴보자.

先生答滕德粹書曰：“官閒頗得讀書，不知做得何工夫？歲月如流，易得空過。彼中朋友書來，多稱德粹之賢。然鄙意所望者則不止此，願更勉力，益加探討之功，勿令異時相見，無疑可問，乃所望爾。”又曰：“切宜痛加矯厲，專一用工，庶幾不至悠悠，虛度時日也。”又曰：“大抵學問以變化氣質為功，不知向年遲緩悠悠意思頗能有所改革否？若猶未也，更須痛自鞭策，乃副所望耳。”又曰：“暇日讀何書，作何事業？學問別無他巧，只要持守純固，講誦精熟耳。兩事皆以專一悠久為功，二三間斷為敗，不可不深念也。”

이 조목은 《朱子讀書法》 2권 著緊用力 14번 조목이다. 이 조목은 《朱子文集》 49권에서 〈答滕德粹〉의 각기 다른 편지 3개와 〈答滕德章〉의 편지를 조합하여 만들었다. ‘官閒頗得讀書’부터 ‘乃所望爾’까지는 〈答滕德粹〉의 5번째 편지이고, ‘切宜痛加矯厲’부터 ‘虛度時日也’는 12번째 편지이고, ‘大抵學問以變化氣質為功’부터 ‘乃副所望耳’까지는 6번째 편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答滕德章〉의 5번째 편지이다.

다음은 《朱子文集》과 《朱子語錄》를 조합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先生書謂黃直卿曰：“春秋難看，尤非病後所宜，且讀他經論孟之屬，如不食馬肝，未爲不知味也。名數，制度之類，略知之便得，不必大段深泥，以妨學問。”

이 조목은 《朱子讀書法》 1권 循序漸進의 8번째 조목으로 《朱子文集》과 《朱子語錄》에 나오는 내용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처음부터 ‘未爲不知味也’까지는 《朱子續集》 1권 〈答黃直卿〉에 보이고 그 이후로 끝까지는 《朱子語錄》의 구절이다. 이처럼 《朱子讀書法》은 《朱子文集》과 《朱子語錄》를 인용하면서 다양한 조합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인 分節은 組合과는 반대의 방식으로 하나의 조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조목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보통 긴 조목을 인용하면서 앞뒤의 문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일 때 주로 사용하는 편집 방식이다. 분절된 조목을 살펴보자.

先生答陳福公書曰：“某嘗聞之師友，大學一篇，乃入德之門戶，學者當先講習，知得爲學次第規模，乃可讀語孟中庸，究見義理根源體用之大略，然後徐考諸經，以極其趣，庶幾有得。蓋諸經條例不同，工夫浩博，若不先讀大學論孟中庸，令胸次開明，自有主宰，未易遽求也。爲學之初，尤當深以貪多躐等，好高尚異爲戒耳。然此猶是知見邊事，若但入耳出口，以資談說，則亦何所用之，既已知得，便當謹守力行，乃爲學問之實耳。”

先生答陳福公書曰：“伊洛文字亦多，恐難遍覽，只前此所稟近思錄，乃其要領，只此一書，尚恐理會未徹，不在多看也。”

위의 조목은 《朱子讀書法》 1권 綱領의 10번째 조목이고 아래 조목은 《朱子讀書法》 1권 循序漸進의 15번째 조목이다. 이 두 개의 조목은 원래 《朱子文集》 26권의 〈與陳丞相別紙〉의 내용인데 의미맥락이 달라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2조목으로 분절하여 다른 조목에 배속시켰다.

다섯 번째의 變形은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내용을 고치고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원래의 문장을 훼손하고 잘못하면 곡해와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朱子讀書法》에는 간혹 이러한 변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변형시킨 조

목을 살펴보자.

答余占之書曰：“讀書之法，熟讀精思，此外更無別巧。”

“周張二書，恐未暇及。若欲便看過，熟讀深思，此外更無別巧。”

위의 조목은 《朱子讀書法》 3권 熟讀精思의 6번째 조목이고 아래 조목은 원래 편지글로 《朱子文集》 50권에 보인다. 인용한 조목에서는 ‘독서의 방법’이라고 했지만 원래 편지글에서는 ‘주돈이와 장재선생의 글’이라고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편지글은 특정한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읽는 방법이 熟讀精思라고 말하고 있지만 《朱子讀書法》에서는 특정한 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독서법으로 변형시켰다. 이처럼 책의 내용을 변형시켜 인용할 때에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변형시켜 인용하는 경우를 더러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의 移動은 원래 내용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동시킨 조목을 살펴보자.

答徐居厚書曰：“平心和氣，却是吾人學問根本。不必大段著力記當，損人心力，使人血氣不舒，易生疾病。況古人之學，自有正當用力處，此等只是隨力隨分開廣規模。若專恃此，亦成何等學問耶？”

“大病新復，正要將護，不可少有激觸，損動真氣。讀書度未能罷，且歇得數月亦佳。將來看時，亦且適意遮眼，自有意味，正不必大段著力記當。損人心力，使人血氣不舒，易生疾病。況古人之學，自有正當用力處，此等只是隨力隨分開廣規模，若專恃此，亦成何等學問耶？”前此屢欲言之，而匆匆不暇。今亦不特為養病發也。今人但見孔子問禮問官，無所不學，便道學問只是如此。却不知得他合下是甚次第大的本領，方有功夫到此。若只將自家此等小小見識而學養子而後嫁，豈不誤哉？至於平心和氣，却是吾人學問根本，亦不為病然後當著力也。”

위의 조목은 《朱子讀書法》 4권 虛心涵泳의 70번째 조목이고 아래 항목은 원래 편지글로 《朱子文集》 56권에 보인다. 《朱子讀書法》에서 이 조목을 인용할 때에 많은 부분을 산삭하였을 뿐만 아니라 ‘平心和氣, 却是吾人學問根本.’이라는 구절은 원래 편지글 마지막 부분에 있던 것인데 문장의 가장 첫머리로 구절을 이동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집방식	출현빈도
引用	원전을 그대로 가지고 옴	下
截取	필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옴	上
組合	여러 조목을 하나의 조목으로 합함	中
分節	하나의 조목을 여러 조목으로 나눔	下
變形	원문을 구절을 고치고 바꿈	中
移動	구절의 순서를 바꿈	下

2. 한계점

《朱子讀書法》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주자관련 기록에서 독서법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발췌하여 강령과 6조목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朱子語類·讀書法》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朱子讀書法》에는 이러한 장점에 상응하는 여러 단점과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런 한계점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완전한 판본에 따른 誤字, 贅言, 重複이고 두 번째는 무리한 截取와 組合에 따른 맥락의 단절과 문맥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한 점이고 세 번째는 《朱子語錄》과 《朱子文集》의 방대한 양과 지면의 한계로 인한 발췌의 한계이다.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불완전한 판본이다. 주자의 학문적 방법과 독서 방법론은 일찍이 선유들에

게 주목을 받아왔지만 아쉽게도 《朱子讀書法》은 세상에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四庫全書提要》에 따르면 원나라 때에 이미 판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고, 《四庫全書》를 편찬할 당시에도 張洪과 齊庶가 편찬한 권수와 순서를 확실히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완전한 판본으로 인해 誤字가 많아 반드시 《朱子語類》와 《朱子文集》과 비교 대조해 보아야만 한다. 또한 贅言과 重複된 경우도 더러 발견된다. 誤字는 글자의 단순한 誤字부터 人名, 地名등과 같이 심각한 오자도 더러 보인다.

答陳明仲書曰：“經書難讀，而『易』書爲尤難。蓋未開卷時，已有一重象數大概工夫，開卷之後，經文本意又多被先儒硬說殺了，今人看得意思局促，不見本來開物成務活法。”

答趙履常曰：“示喻讀書遺忘，此亦士友之通患。無藥可醫。只有少讀深思，令其意味浹洽，當稍見功耳。讀易亦佳。但經書難讀而此經爲尤難。蓋未開卷時已有一重象數大槩功夫，開卷之後，經文本意又多被先儒硬說殺了。今人看得意思局促，不見本來開物成務活法。”

위의 조목은 《朱子讀書法》 3권 循序漸進의 19번째 조목이고 아래 조목은 원래 편지글로 《朱子文集》 56권에 보인다. 《朱子讀書法》에는 〈答陳明仲書〉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答趙履常〉으로 되어 있고, 《朱子讀書法》에서는 ‘今人’, ‘活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令人’, ‘活潑’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誤字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해석을 불러오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贅言의 경우를 살펴 보자.

答柯國材書曰：“大抵講學只要理會義理，義理非人所能爲，乃天理也。”

大抵講學只要理會義理，非人所能爲，乃天理也。

위의 조목은 《朱子讀書法》 4권 虛心涵泳의 96번째 조목이고 아래 조목은 《朱子文集》 39권에 보이는 원문이다. 원문에서는 ‘義理’가 한번 나오는데 《朱子讀書法》에서는 두 번이나 나와 쓸데없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重複의 경우를 살펴보자.

凡看文字，且就本文上看，看一段，須反覆看來看去，要爛熟，方見意味快活。令人都不欲看別段，始得。

凡看文字，且就本文上看，看一段，須反覆看來看去，要爛熟，方見意味快活。令人都不欲看外段，始得。

위의 조목은 《朱子讀書法》 3권 熟讀精思의 43번째 조목이고 아래 조목은 熟讀精思 4권 虛心涵泳의 12번째 조목이다. ‘別’과 ‘外’의 글자만의 차이만 있을 뿐 重複되어 출현하였다. 같은 내용이 두 조목에 중복된 것은 아마도 熟讀과 涵泳이 서로 의미상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무리한 截取와 組合 등으로 인한 맥락의 단절과 문맥이 자연스럽게 못한 점이다. 이것은 편집방식에 이미 잠재된 한계점이다. 편집자는 원문의 맥락을 알고 필요한 부분을 절취나 조합 등의 방식으로 가져 오기 때문에 의미상의 단절을 느끼지 못하지만 《朱子讀書法》을 읽는 독자는 원문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자의 안목에 따라 앞뒤의 단락이 끊긴 문장만 보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각기 다른 문맥의 문장들을 하나의 조목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하나의 주제로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원래 다른 맥락의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천의무봉하게 여러 문장들을 잘 조합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각각의 문장들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도출하게 된다. 먼저 무리한 절취로 인한 맥락의 단절이 발생한 것을 살펴보자.

“蓋觀者一見而決，玩者反復而不能舍之辭。”

“示喻觀玩之別，想已有成說，茲因下問之及，嘗竊思之，敢布左右。‘蓋易有象「八卦六爻」，然後有辭「卦爻之辭」，筮有變「老陰老陽」，然後有占「變爻之辭」，象之變也在理而未形於事者也。辭則各因象而指其吉凶，占則又因吾之所值之辭而決焉，其示人也益以詳矣。故君子居而學易，則既觀象矣，又玩辭以考其所處之當否，動而誡筮，則既觀變矣，又玩占以考其所值之吉凶，善而吉者則行，否而凶者則止。是以動靜之間，舉無違理而自天祐之吉無不利也。蓋觀者一見而決，玩者反復而不能舍之辭也。’”

위의 조목은 《朱子讀書法》 3권 熟讀精思의 56번째 조목이고, 아래 항목은 《朱子文集》 45권 〈答丘子野〉에 보이는 원문이다. 《朱子讀書法》에서는 앞의 부분을 다 절취하고 마지막 부분만을 인용하였는데 원문을 알지 못하고 바로 《朱子讀書法》을 보면 “본다는 것은 한 번 보고 결단하는 것이고 완미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완미하여 놓아두지 않는다는 말이다.”는 뜻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朱子讀書法》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을 때에는 ‘반복해서 완미한다.’라는 뜻이 熟讀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용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觀’의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되기 힘들다. 원문에 근거해보면 ‘觀’이라는 것은 한번 象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고, ‘玩’은 그 占辭를 음미하여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필요한 부분만을 무리하게 절취하는 방식은 문장 앞뒤의 단절을 초래하여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문장을 조합한 경우를 살펴보자.

先生答江端伯書曰：“所議爲學之方，足見留意。‘事物未至，不可逆料。’誠如所論。惟有因聖賢之所已言者，玩索之，爲庶幾耳。故爲學不可不讀書。讀書之法，又當沈思，反覆涵泳，銖積寸累，久當見功，理明，心亦自定。若欲爲涉躐而求此理之明，又欲求方便，以望此心之定，亦難矣。即聖賢之言，平易明白處，虛心平氣，熟玩而躬行之，玩之深則理自明，行之熟則力自進。持之以久，下學而上達，則道體精微之妙，聖賢親切之傳，不待單傳密付，而已了然於心

目之間矣.”

이 조목은 《朱子讀書法》 1권 綱領 11번째 조목으로 두 개의 편지를 모아 놓은 것이다. 처음부터 ‘亦難矣.’까지는 〈答江端伯〉의 편지이고 그 뒤로 끝까지는 〈答汪叔耕〉의 편지 내용이다. 아마도 같은 의미의 내용을 조합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편지의 내용을 무리하게 연결하다보니 ‘亦難矣.’의 앞뒤로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발췌의 한계는 《朱子文集》과 《朱子語錄》의 방대한 양과 책의 분량이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한계점이다. 《朱子文集》은 本集 100권, 別集 11권, 續集 10권으로 총 121권이고 당시에 유행하던 《三錄》도 권수가 115권이고 黃士毅가 편찬한 《語類》도 140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리고 《朱子文集》과 《朱子語錄》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학문과 독서, 수양, 교육의 분야를 다루고 있어 독서와 관련된 내용은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朱子讀書法》이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朱子文集》과 《朱子語錄》에서 많이 발췌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朱子讀書法》의 한계점

원 인	결 과
誤字, 贅言, 重複	잘못된 정보와 오해
무리한 截取, 組合	맥락의 단절과 순조롭지 못함
방대한 양과 지면의 한계	발췌의 한계

V. 맺음말

독서는 주자에 의하여 단순한 ‘책읽기’에서 벗어나 학문의 방법론으로 그 위치가 격상하게 되어 주자관련 기록에서 독서와 관련된 기록을 우리

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독서관련 내용이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후인들이 그 요령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학자들을 올바른 학문방법과 독서방법으로 인도하고자 《朱子讀書法》은 당시의 존재하던 각종 주자어록과 주자문집에서 독서관련 내용을 6가지 편집방식인 인용, 절취, 조합, 분절, 변형, 이동을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발췌하고 강령과 6조목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이렇게 ‘讀書法’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책은 《朱子讀書法》이 처음으로 후대에 간행되는 여러 독서법관련 저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朱子讀書法》은 이렇게 처음이라는 역사적 위상과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판본에 따른 誤字, 贅言, 重複 등의 결점과 무리한 截取와 組合에 따른 맥락의 단절과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독서관련 내용의 방대한 양과 책의 분량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독서관련 내용을 다 실지 못했다는 태생적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文淵閣四庫全書本·朱子讀書法》
2. 김기호, 〈주자어류(朱子語類) 독서법에 나타난 신의론(新意論)〉, 《인문연구》 59권, 2010.
3. 김문식, 〈조선본 『朱子語類』의 간행과 활용〉, 《사학지》 43권, 2011.
4. 신태수, 〈주자어류(朱子語類) 독서법(讀書法)에 나타난 활간론(活看論)〉, 《한민족어문학》 60권, 2012년.
5. 신태수, 〈주자어류(朱子語類) 독서법(讀書法)의 층위(層位)와 그 구성주의적(構成主義的) 성격(性格)〉, 《영남학》 21권, 2012년.
6. 허탁·이용성·이승준. 《朱子語類》(3~4권), 청계출판사, 2001.
7. 黎靖德, 《朱子語類》(1~8권), 中華書局, 1986.

8. 施榆生, 〈程端禮《讀書分年日程》初探〉, 《漳州師院學報》, 1998.
9. 徐時儀, 潘牧天 整理 《朱子語錄》(上下), 上海古籍出版社, 2016
10. 朱熹, 《朱子全書》(1~27권), 上海古籍出版社, 2003.

< Abstract >

“Zhu-Hsi’s Reading Method(the way of reading that Zhu-Hsi(1130~1200) passed down)” is the collection, selected from what Zhu-Hsi said about reading by Zhānghóng and Jae-Hee. The purpose of its compilation was to correct scholars’ erroneous methods of the study to guide them to right reading methods. “Zhu-Hsi’s Reading Method” selected a wide range of writing genres from “Zhu Hsi’s Collected Works,” and “Zhu Hsi’s Words” Collection to classify and arrange codes and six items; gradual moving forward(循序漸進), To read a book thoroughly and think with precision(熟讀精思), to make mind empty to be immersed in the book(虛心涵泳), to check and reflect oneself(切己體察), to study tightly(著緊用力), and to stabilize the mind and establish one’s will firmly(居敬持志). In addition, compared to the reading methods, seen from the 10th volume and the 11th volume of “Zhu Hsi’s Words’ Collection,” “Zhu-Hsi’s Reading Method” contain more contents covering the reading method of “Zhu Hsi’s Words’ Collection.” Regarding the ways of editing, a total of 6 ways: quotation, cut, combination, segmentation, transformation, and movement were used. However, the editing process reached a limit in that the contents or contexts were not smoothly connected due to the problems such as misspelling and unreasonable cutting and combination.

Key Words : 주자독서법(zhu-Hsi's Reading Method), 강령과 6조목(a code and six articles), 6가지 편집방식(six Editing method), 3가지 한계점(Three Problems)